



K-POP 열풍, 전북에서 이어간다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

문화·올림픽 홍보 연계
세계 청소년 K-POP 교육
시범사업 최종 참가자들
도청 방문 환영·격려 받아
올림픽 유치 서포터즈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에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세계 청소년들과의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K-POP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문화올림픽 유치 홍보를 결합해 추진한다.

아카데미에는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했고, 선발 과정을 거쳐 9개국 20명이 최종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 원주 아원고택, 부안 비치립 등 전북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며 K-컬처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각국 언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맞춤형 보컬·댄스 수업과 한국어·뷰티·드라마 등 K-컬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개별·그룹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마지막 날 열릴 쇼케이스 무대를 위해 특별 커버곡과 신곡 안무를 준비하고 있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선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리셉션에서 개막선언을 하고 있다.

13일에는 최종 참가자들이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환영과 격려를 받았다.

도청 잔디광장에서는 K-POP 어게츨 챌린지와 각국 언어로 문화올림픽 유치 홍보 멘트 촬영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북 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올림픽이 시작됩니다”라는 메시지를 9개국 언어로 외치며 화합과

열정을 보여줬다. <관련사진 3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학생 모집과 커리큘럼, 국제적 호응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청소년 유치와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케이팝 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해 전북이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건설업계 고용위기 극복’... 도, 맞춤형 지원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업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총 7.9억원 규모의 ‘건설업 고용문화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2일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 220명과 기업 400곳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사)전주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발전협의회가 수행기관으로 참

유해 연말까지 총 7억9000만원 규모로 고용문화 대응 지원 추진
도내 220명 건설근로자·기업 400곳에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

여하며, 건설 수주액 급감과 부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지역 고용문화와 업종을 선정하고, 맞춤형 고용유지 및 장려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을 포함한 신규 취업자 50명에게는 취업성공금 30만원을, 1년 이상 재직한 장기 근로자 170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업 지원으로는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400개 업

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3일부터 도내 건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노무분쟁 예방 전문 컨설팅’도 시행된다. 단순한 고용지원을 넘어 건설업계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증가하는 노무분쟁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산업재해·노무관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 등 전문가 10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컨설팅 사례를 향후 건설업 안전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통·세계음악 어우러지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조직위 “완성도·아티스트 인지도 모두 최고 구성”

5일간 소리문화전당 중심으로... 예술인 교류의 장

전통음악과 전 세계의 음악이 한 데 어우러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다섯 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민요·산조 등은 물론 전 세계 음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키워드를 ‘분향의 메아리’로 잡았다. 총 9회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오전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을 넘어선 한국을 대표하고 글로벌한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판소리 다섯 바탕은 물론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집행에 맡겼던) 3년 동안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다”며 “완성도나 아티스트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축제를 전북 지역을 넘어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글로벌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서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축제를 지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이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 봐주시고 도민들께서 소리의 향연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축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의 교류인 전북 전주

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의 개막공연은 국립창극단과 함께한 ‘판소리 씨어터 심청(Pansori Theater Shimcheong)’이다.

기존의 고전 ‘심청가’의 진행 방식, 이야기를 완전히 비튼 이번 개막공연은 독일 만하임국립극장 상임연출가인 요나 김(Yona Kim) 및 유럽 최고의 연출진이 무대를 기획해 14일까지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축제의 대미는 17일 열리는 폐막공연으로 안은미 컴퍼니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다. 세계 무용계에서 주목받는 안은미 감독의 기획으로, 할머니들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 이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표현한다.

전통 분야에 집중한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판소리 다섯바탕’, 젊은 소리꾼들의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와 함께 ‘산조의 밤’ ‘성악 열전’ 등을 통한 국악의 깊이를 느끼는 프로그램도 준비돼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 음악 역시 한국·스페인 수교 75주년 기념 ‘스페인 포커스’와 함께 모두 12개국 12개 팀의 연주를 통해 맛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다채로운 공연은 물론, 축제를 넘어선 예술인 교류 플랫폼으로 써 기능하기 위한 ‘소리 넥스트’ ‘소리학술포럼’ 등이 준비돼 예술인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청, 건설사업 심의·평가 ‘3중 관리’ 도입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새만금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8월 15일 광복절에 따라
17일까지 신문 쉽니다.

2025 여름방학 특별기획 백두대간 자생 곤충전

운영 장소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운영 기간
2025. 7. 26(토) ~ 8. 31(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전화 : 063-620-5752~4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 남원시

본 행사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복권기금으로 진행됩니다.